

# 세(世)와 대(代)에 관한 고찰



작성자 : 남양주시 청학문중 김재광

2012년에 발행한 석성공파 세보 717페이지를 인용하면 세와 대는 다르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2009년에 성균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인용하면 세와 대는 같다고 하였습니다.

양쪽 주장이 완전히 반대이기는 하지만 세밀하게 접근하면 일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주장이 같다는 것을 알기위해

세(世), 대(代), 세조(世祖), 대조(代祖), 세손(世孫), 대손(代孫) 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양쪽의 세와 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 ● 석성공파의 세와 대에 대한 개념 정리(석성공파 세보 717쪽)

孫雲	孫仍	孫昆	孫來	孫玄	孫曾	孫	子	己自	父	祖	祖曾	祖高	祖玄
孫代八	孫代七	孫代六	孫代五	孫代四	孫代三	代二	代一	〇	代一	代二	祖代三	祖代四	祖代五

世와代

始祖를一世로하여 차례대로 따져서 정하는 것이世이며 자기를 뺀 나머지를 차례로 따지는 것이代이다.

예컨대父子의 사이는世로는二世이지만代로는一代이다.始祖로부터二十一세가 되는 사람은始祖가二十代祖이며始祖에게는二十代孫에該當하는것이다.

우리는 흔히世와代를 같은 뜻으로錯覺混用하고 있으나 이것은嚴然히區別되어 있다.卽世는自己까지合數하여計算한世數이며代는自己를 빼고 바로윗代 아버지까지를合數하여計算한代數를말한다.

예를들면 다음과 같다.

例、高祖는나의四代祖이다.

나는高祖의四代孫이다.

이 경우는自己가合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代를써야하며「世」로表示할 경우는自己가合數되기 때문에「五世祖」또는「五世孫」이라는計算이되나 가까운先祖에는世를쓰지 아니하므로五世祖(高祖)는四代祖라한다.

● 성균관의 세와 대에 대한 개념 정리(성균관 최종론)

## 성균관 代와 世, 代數와 世數 比較表/최종론

[대(代)와 세(世)는 같으며 기준인 나(己)를 포함한다]

[대조와 세조는 같으며 기준을 포함하지 않는다]

[대손과 세손도 같으며 기준을 포함하지 않는다]

관계	代	기준	世	관계
4代祖	5代	高祖	5世	4世祖
3代祖	4代	曾祖	4世	3世祖
2代祖	3代	祖	3世	2世祖
1代祖	2代	父	2世	1世祖
<b>0</b>	<b>1代</b>	<b>본인</b>	<b>1世</b>	<b>0</b>
1代孫	2代	子	2世	1世孫
2代孫	3代	孫	3世	2世孫
3代孫	4代	曾孫	4世	3世孫
4代孫	5代	玄孫	5世	4世孫

2009년11월28일 성균관홈페이지 자유게시판3638에서 토론을 마치며 토론의 결과는 도전사청재(李星衡)님, 예사랑(김정곤)님, 권태현님, 설종윤님, 이덕규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잠정 귀결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번 토론회의 결과일뿐 확대해석하여 또다른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혹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자료를 분석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갔으면 합니다.

위의 양쪽 개념을 바탕으로 6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 1. 세(世) : 석성공파 = 성균관

조상과 후손을 순서에 따라 나열하기 위해 세를 사용하였으며, 본인은 기준에 포함시킵니다. 석성공파 및 성균관 모두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활용법도 동일합니다.

사진1) 석성공파 세보 : 모든 구성원들이 항렬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되며, 본인도 기준에 포함됩니다.

중조휘목경(中祖諱牧卿)부터十八世로기자(起字)라				
東 ○	三十四世	載在 ○	二十六世 濟 ○	始祖 六十八世 中祖 十八世 石城公 十二世 金寧君 十八世
○ 煥烈	三十五世	○ 鎭	○ 植	六十九世
重 ○	三十六世	浩 ○	顯 ○	七十世
○ 善鎔	三十七世	○ 根	○ 培	二十一世
洛 ○	三十八世	益性 ○	鍾 ○	二十二世
○ 相	三十九世	○ 坤用	○ 洙泰	二十三世
炯炳 ○	四十世	鎬錫 ○	榮 ○	二十四世
○ 奎基	四十一世	○ 淳	○ 燮謙	二十五世

사진2) 성균관 : 본인도 기준에 포함됨

기준	世
高祖	5世
曾祖	4世
祖	3世
父	2世
본인	1世
子	2世
孫	3世
曾孫	4世
玄孫	5世



## 2. 대(代) : 석성공파 ≠ 성균관

대는 조상과 후손을 순서에 따라 나열한다는 의미는 세와 같습니다. 하지만 성균관과 화산재종중회는 본인을 대에 포함시키고, 석성공파는 본인을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사진1) 석성공파 세보 : 본인은 기준에 포함 안됨

孫玄	孫曾	孫	子	己自	父	祖	祖曾	祖高	祖玄
孫代四	孫代三	代二	代一	○	代一	代二	祖代三	祖代四	祖代五

사진2) 화산재종중회 정기총회 자료 : 세와 같은 의미로 대를 사용하였고 본인은 세에서 처럼 기준에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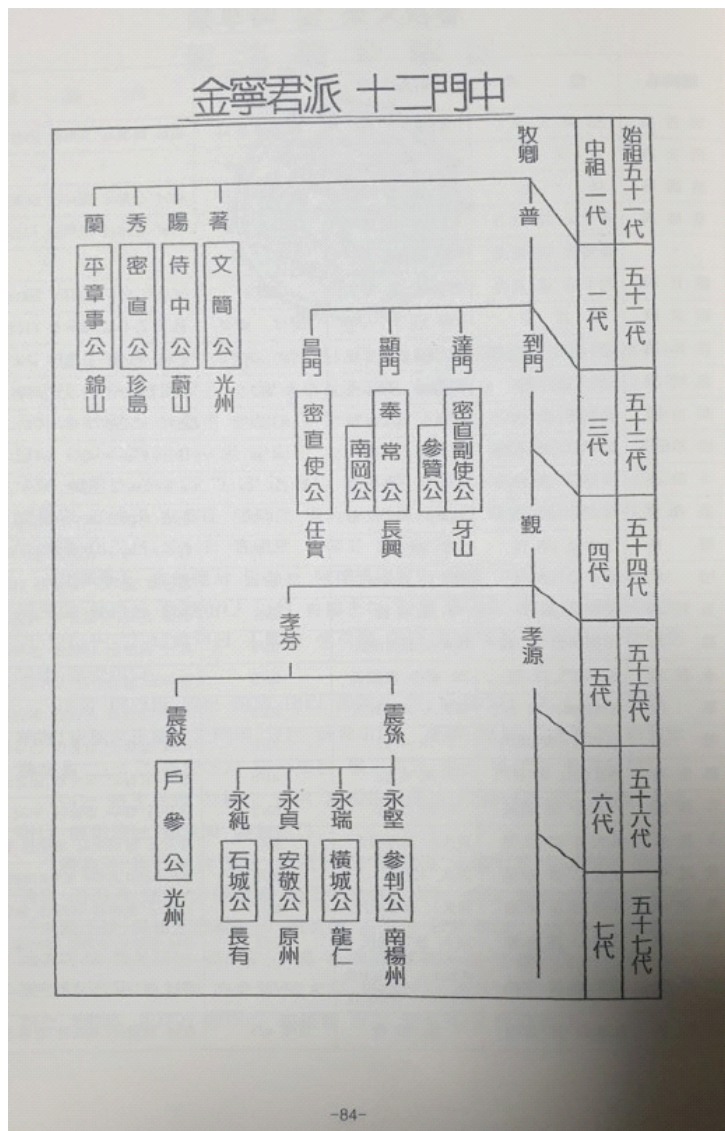


사진3) 성균관 : 본인은 기준에 포함됨

4代	曾祖
3代	祖
2代	父
1代	본인
2代	子
3代	孫
4代	曾孫

### 3. 세조(世祖) : 석성공파 ≠ 성균관

세조는 석성공파와 화산재종중회에서 사용한 사례는 없었으며, 윗 조상을 말할때 세조를 사용하지 않고 주로 대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성공파에서는 본인을 기준에 포함시키고, 성균관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성균관에서는 세조와 대조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므로 별다른 제약없이 사용합니다.

사진1) 성균관 : 세조와 대조가 동일합니다.

관계	代	기준	世	관계
4代祖	5代	高祖	5世	4世祖
3代祖	4代	曾祖	4世	3世祖
2代祖	3代	祖	3世	2世祖
1代祖	2代	父	2世	1世祖
0	1代	본인	1世	0
1代孫	2代	子	2世	1世孫
2代孫	3代	孫	3世	2世孫
3代孫	4代	曾孫	4世	3世孫
4代孫	5代	玄孫	5世	4世孫

#### 4. 대조(代祖) : 석성공파 = 성균관

대조는 후손의 입장에서 조상과의 관계를 말하기 위해 사용하므로 본인은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석성공파, 성균관 모두 동일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사진1) 석성공파 세보 : 본인은 기준에 포함안됨

子	己自	父	祖	祖曾	祖高	祖玄
代一	○	代一	代二	祖代三	祖代四	祖代五

사진2) 성균관 : 본인은 기준에 포함안됨

관계	代	기준
4代祖	5代	高祖
3代祖	4代	曾祖
2代祖	3代	祖
1代祖	2代	父
0	1代	본인



## 5. 세손(世孫) : 석성공파 ≠ 성균관

세손은 조상의 입장에서 후손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동일한 의미로써 석성공파에서는 본인을 기준에 포함시키고, 성균관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사진1) 도유재 묘제축문 : 석성공파에서 세는 본인을 포함시키고, 대는 본인을 포함시키지 않았기에 제향조(충간공 휘 보)와 초헌관(횡성공파 김광태대종손)의 관계가 서로 21대조와 22세손이 됩니다. 반면 성균관에서는 21대조와 21세손으로 표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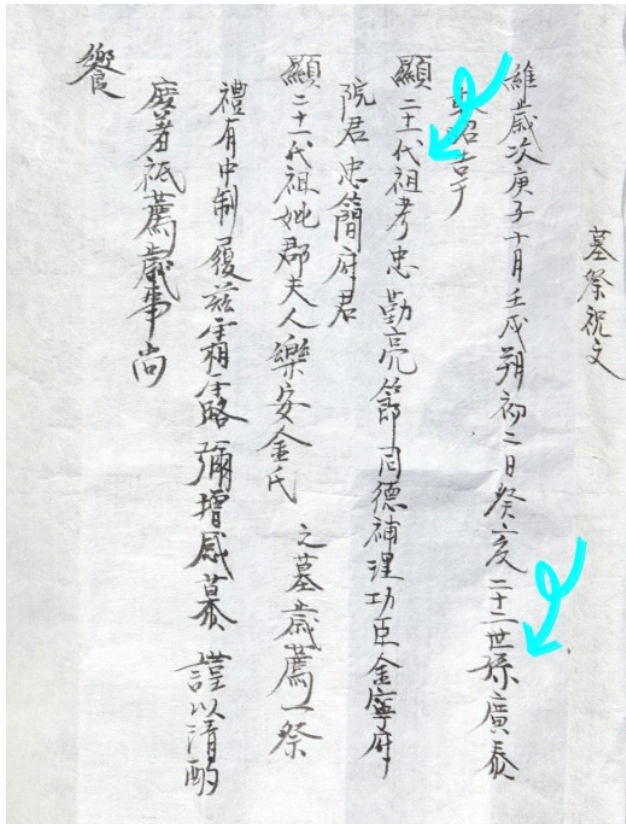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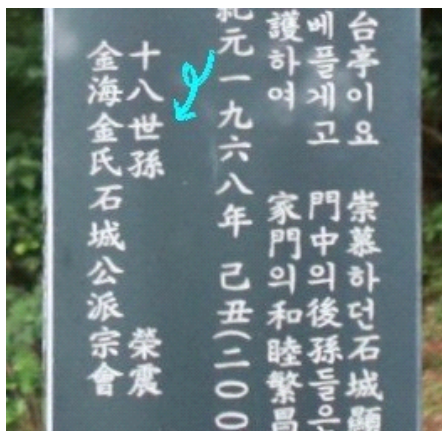


사진2) 금병재 제단비 : 석성공부터 본인(榮震)까지 모두 기준에 포함시켰기에 18세손이 됩니다.

반면 성균관에서는 17세손으로 표기합니다.



## 6. 대손(代孫) : 석성공파 = 성균관

대손은 조상의 입장에서 후손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의미이며 양쪽모두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석성공파와 성균관 모두 본인을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사진1) 성균관 : 본인을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음

0	1代	본인
1代孫	2代	子
2代孫	3代	孫
3代孫	4代	曾孫
4代孫	5代	玄孫

사진2) 석성공파 세보 : 본인을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음

孫來	孫玄	孫曾	孫	子	己自
孫代五	孫代四	孫代三	代二	代一	○

### 석성공파와 성균관의 공통점

세, 대조, 대손은 석성공파와 성균관에서 양쪽 모두 동일합니다.

6개의 구성요소 중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세, 대조, 대손만 사용하고 복잡하게 다른 대, 세조, 세손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양쪽 주장과는 상관없이 같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사진1) 2020년 화산재 추향제 축문 : 제향조(김녕군)와 초헌관(횡성공파 김광태대종손)의 관계가 22대조, 22대손으로 성균관의 표현방식과 일치합니다.



제향조 : 휘 목경  
(김해김씨 중조)



초헌관 : 김광태님  
(횡성공파 대종손)

維

歲次庚子十月壬戌朔初一日壬戌三代孫廣泰

敢昭告于

顯三代祖考高麗三重大臣金寧君府君

顯三代祖妣郡夫人安東權氏之位

祭序流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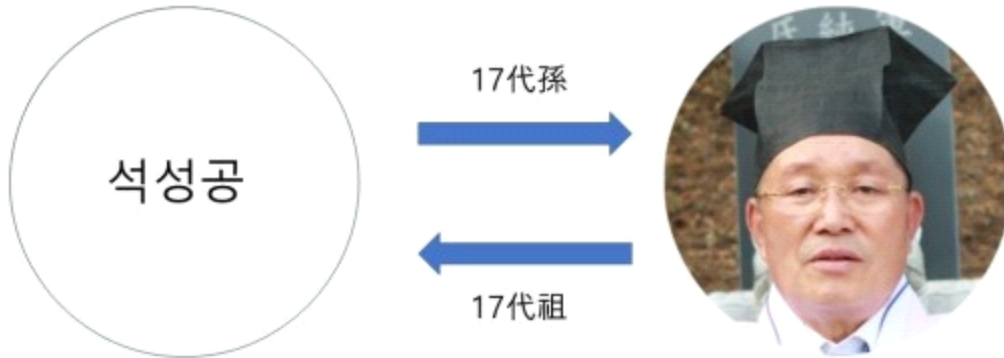
霜霜露既降瞻望封墓不勝永慕

謹以清酌庶羞祇薦歲事尚

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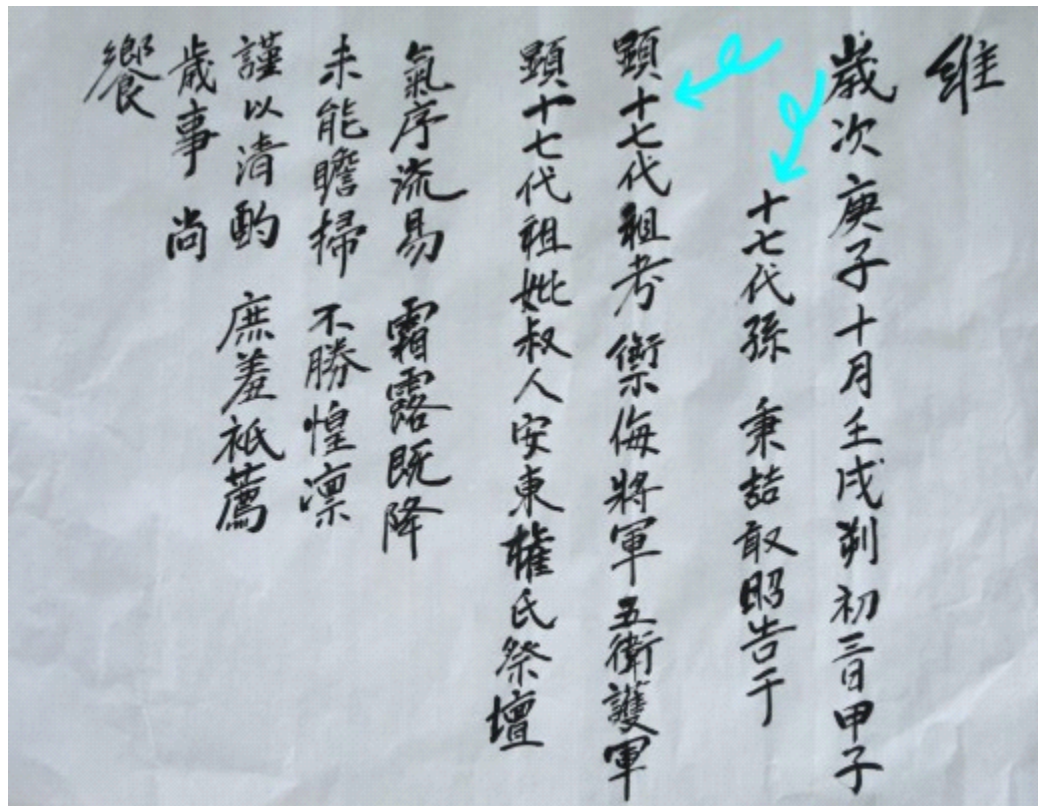


사진2) 2020년 금병재 추향제 축문 : 제향조(석성공)와 초헌관(석성공파 김병철대종손)의 관계가 17대조, 17대손으로 성균관의 표현방식과 동일합니다.



제향조 : 휘 영순  
(석성공파 파조)

초헌관 : 김병철님  
(석성공파 대종손)





조상과 후손간의 **순서**를 말할때는 **세**만 사용하고,

조상과 후손간의 **관계**를 말할때는 **대조**와 **대손**만 사용한다면

석성공파와 성균관의 표현방식이 일치하므로 그나마 혼선을 피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울러 석성공파와 성균관의 표현 방식이 서로 다른 대, 세조, 세손이라는 표현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대" 대신 "세"를 사용하고, "세조" 대신 "대조"를 사용하고, "세손" 대신 "대손"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 표준의 중요성

서울의 지하철 일부 구간에서 전동차들이 전원을 끄고 관성을 이용하여 달리는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이유는, 한국철도공사(옛 철도청)가 운영하는 곳과 서울지하철공사가 운영하는 곳에서 전력 공급을 위한 기술 표준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철도공사 구역에서는 25,000V의 교류 전원을 사용하는 반면에, 서울지하철공사 구역에서는 1,500V의 직류 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 구역 사이의 '마의 구간'에서는 잠시 전원을 끌 수밖에 없다고합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멈추면 자체 동력이 없는 지하철을 견인해야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와 대가 같다, 세와 대가 다르다라는 논쟁은 위에서 보듯이 교류와 직류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과 같습니다. 세, 대조, 대손이라는 단어만 사용하고, 대, 세조, 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마의 구간"을 통과할수 있습니다. 최상의 방법은 교류와 직류 중에서 한가지 표준을 정해야 하듯이, 세와 대에 대한 방식도 한가지 표준을 정한 뒤 사용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세와 대에 대한 용어의 어려움과 복잡한 내용으로 인해 저의 글에 오류나 오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올리겠습니다.

작성자: 김재광(010-3956-4351)